

考試科目	韓文	系所別	韓國語文學系	考試時間	2月2日(五) 第三節
------	----	-----	--------	------	-------------

一、請在閱讀文章後，於空格處填入正確的選項。(每題5分，共10分)

1. 인종차별주의는 사람을 인종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근거해 한 인종 집단의 이익이 다른 인종 집단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 결과로 한 인종 집단의 구성원은 다른 인종 집단의 구성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된다.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이나 민족주의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특정 집단들 사이의 차별 대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집단들 사이에 합당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인종차별주의, 종교적 편견, 민족주의에서는 합당한 차이를 찾을 수 없다. 물론 차별 대우가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대학마다 차별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결정은 대학들 사이의 합당한 차이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 만약 어떤 대학이 국가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다른 대학은 그렇지 못하다면, 이에 근거해 국가의 차별적 지원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인종차별주의, 종교적 편견, 민족주의에 따른 차별 대우는 이렇게 정당화될 수 없다. 합당한 차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 다음 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 ①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큰 이익을 획득해서는 안 된다.
- ② 특정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차별 대우는 정당화될 수 없다.
- ③ 특정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은 다른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 ④ 특정 집단들 사이의 차별 대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⑤ 특정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 사이에 합당한 차이가 있더라도 차별 대우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答案：(       )

2. 녹색성장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이다.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11%로 확대하려는 것은 탄소배출량 감축과 성장동력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란 연료전기, 석탄 가스화 복합발전 등의 신에너지와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력, 지열, 폐기물 등의 재생가능에너지를 통칭해 부르는 용어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폐기물이 77%, 수력이 14%, 바이오가 6.6%, 풍력이 1.4%, 기타가 1%이었으며, 이들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와 '전력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備註	一、作答於試題上者，不予計分。 二、試題請隨卷繳交。
----	-------------------------------

考試科目	韓文	系所別	韓國語文學系	考試時間	2月2日(五) 第三節
------	----	-----	--------	------	-------------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과급효과가 큰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분야에 대한 국산화 지원과 더불어 예산 대비 보급효과가 큰 바이오 연료, 폐기물 연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정책과 함께 한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위한 다양한 규제정책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위 글에 부합하는 것은?

- ① 환경보전을 위해 경제성장을 제한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 ② 신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재생가능에너지보다 크다.
- ③ 2007년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 ④ 한국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해 규제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친화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 ⑤ 산업과급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보다 예산 대비 보급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答案：( )

二、請將以下韓文譯為中文、中文譯為韓文。(每題15分，共60分)

1. 한국 정부 “가상통화, 과열로 도박성 커져” ...거래 불길 잡힐까

한국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초강경 카드를 집어든 건 가상통화 시장의 과열 양상이 이어져 온 데 따른 것이다. 일부에선 한국 정부 대응이 뚜렷한 기준 없이 오락가락하거나 한국 정부 내 의견 조율도 미처 이루어지지 않아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 “할머니 뜻에 어긋난 위안부 합의” 문 대통령, 피해자들에 공식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 맺은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대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뜻에 어긋나는 협의를 해 죄송하다” 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해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에 따른 후속 조치” 를 지시한 데 이어 직접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 고개 숙이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3. 《與神同行》在韓國上映後，短期間內即成為2018年第一部破千萬觀影人次的電影。緊接著在臺灣也開出超亮眼的票房紀錄，在上映第十天即宣告全臺票房正式破億，跨年連假結束就直逼1.5億。好消息傳到韓國劇組後，導演與主演員們一同錄製影像，感謝台灣影迷們的支持與愛護。

考試科目	韓文	系所別	韓國語文學系	考試時間	2月2日(五) 第三節
------	----	-----	--------	------	-------------

4. 根據教育部於 104 學年度的統計，在全台灣 164 所公私立大學中，光是台灣大學、淡江大學、政治大學三校，就各約有 1000 位學生出國交換，佔該學年度總赴外交換學生數的 3/10。目前最新的統計雖尚未出爐，但依近幾年的趨勢來看，當交換學生的機會是越來越多了。

三、請依照以下的主題，用韓文書寫 700~800 字的短文。(30 分)

「한국어교육 중 문화교육의 필요성」

